

[국제]

‘對北 포괄적 접근방안’ 본격화되나

이번주 한·미, 내주 한·미·일 회동 세부 조율 들어갈 듯

9.14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합의한 ‘공통 포괄적 접근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국간 협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번 주중 미국을 방문,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동하는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한·미·일 3국이 모여 ‘포괄적 접근방안’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美 “대북제재 계속” 낙관 어려워

그러나 미국은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중심으로 한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고 북한 역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서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영우·힐 주중 회동=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주중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회동하고 ‘포괄적 접근방안’의 세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 본부장은 18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고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르면 19~20일께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포괄적 접근방안’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대북 경제원조, 북미 관계개선 등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포괄적으로 엮은 ‘패키지 안’이라는 정도로 알려졌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

한미 수석대표 회동의 관건은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만 북미 양자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로 정리된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새 카드를 주동적으로 마련한 한국 내의 기대와 관심과는 달리 미 행정부와 언론이 별다른 기대감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는 점, 스텐턴 레비 미 재무차관이 이번 주 유럽·중동을 순방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의행을 촉구할 예정인 점 등은 설부터 기대를 자제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중국 ‘포괄적 접근방안’이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국면을 협상 중심의 새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판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中 “북 돌발행동 자제” 설득 기대

◇북중 대화에도 관심=북한-중국간 직·간접 대화도 주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이 새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고 북한 역시 한·미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북한 내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연합뉴스



‘가짜 병마용’ 꼭꼭 숨어라!

16일 중국 시안(西安)의 진시황 병마용갱 안에 독일인 행위예술가 파블로 엘(원내)씨가 병마용으로 분장한 채 숨어들어가 병마용 틈에 끼어서 있다. 경찰은 엘의 침입으로 인해 문물이 훼손되지는 않은 점을 감안,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적용해 그에게 ‘치안교역’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연합뉴스

비동맹회의 反美로 부활?

美·이스라엘 ‘일방주의’ 고강도 비판속 폐막

“미 제국주의는 쇠퇴하고 있으며, 새로운 양극체제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미국 일방주의 타도’의 기수임을 자처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번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의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를 포괄하는 118개 회원국의 NAM 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베네수엘라 TV와 회견에서 “비동맹 그룹은 그 우산 아래서 남쪽세력(South)을 단합시키기 위해 재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동맹권이 미국 영향권과 소련 공산권으로 양분된 과거 냉전시대 독립적인 대안 세력을 자처했듯이, 이젠 탈냉전 시대 미국의 ‘일극(一極)체제 일방주의의 세계지배’에 맞선 동맹그

룹으로서 ‘새로운 양극(兩極)’의 한 축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최국인 쿠바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펠리페 페레스 로케 외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동맹운동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그는 비동맹운동이 이번 아바나 14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힘을 키웠고 응집력이 더욱 커졌으며 재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비동맹회의에 앞서부터 참가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NAM을 ‘뉴 사우스(new South)의 상징’이라고 평가해 주목됐다. 아난 총장은 15일 연설에서 “여러분은 새롭고 강력한 ‘남쪽세력(South)’의 상징으로, 세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현재 시점에 여러 개별 국가들 그리고 문

화, 온갖 운동들 사이에서 가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톤의 ‘비동맹 부활, 신 양극체제 도래론’은 92쪽에 달하는 비동맹 정상회의 선언문 문구 곳곳에 묻어나 무시할 수 없는 과장을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유엔 개혁 요구가 큰 물결을 이뤘다. AP 통신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 승인되기 전 미리 공개한 선언문에 따르면 비동맹 회원국들은 유엔에서의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수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선언문은 미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더욱이 안보리 비토 결정사항에 대해 유엔총회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표결로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선언문은 제안했다. /연합뉴스

中 상품수출, 사상 첫 美 앞질러

7월 美 803억1천만弗 - 中 803억3천만弗

중국의 상품수출 규모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7월 서비스를 제외한 중국의 상품수출 규모가 803억3천70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미국의 수출규모는 803억1천300만달러에 그쳤다고 중국 상품수출 규모가 미국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5년 전 만해도 미국의 상품 수출이 중국보다 3배나 많았으며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려면 적어도 10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불과 5년 만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까지 10년 간 중국의 상품수출은 연 평균 19.5%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대미 수출증가율도 연 22.3%에 달했다.

반면 미국의 상품수출 증가율은 연 4.8%에 그쳤다. 미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연 15.5%를 기록했으나 중국의 증가세에 밀리면서 대중 무역적자 확대와 이에 따른 정치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17일 자카르타에서 라마단(이슬람 단식축제)을 알리는 행진 도중 최근 이슬람교를 폭력적인 종교라는 취지로 발언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비난하고 있다. /AFP연합

泰 연쇄 폭탄테러...70여명 사상

16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태국 남부 하타이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외국 관광객 1명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부상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5분께 하타이 시내 중심가인 송클라 지역 내 모데안 쇼핑몰 일대 다섯 곳에

서 오토바이에 장착해놓은 폭탄이 잇따라 터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60여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을 옮겨졌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남성인 외국 관광객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 방송사는 이 관광객의 국적이 캐나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美 CIA, 테러범 심문 어떻게 하길래...

심문범 둘러싼 부시-반란파 갈등 심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강도높은 심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전례없이 흥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가 지적한 반대파는 대권 주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 린제이 그레이엄 등 공화당 의원들로, 이들은 테러용의자들에 제네바 협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 수사와 재판시 이들의 권리를 되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을 15대 9로 통과시킨 반면,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거친 심문을 허용하는 백악관 법안을 52대 8로 통과시켜 대조를 보였다.

백악관의 테러 용의자 심문법안 제출은 지난 6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판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됐던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이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의 재판을 받던중 정식 군사재판을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말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전 시 포로로서의 권리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군사위원회 재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러나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테러용의자 심문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을 개연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연합뉴스

지역최초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법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강의하며, 신고서 작성을 연습합니다

과정	강의시간 및 내용	개강
양도소득세 토요일반	10:00 - 14:00(4시간)	10월14일(토) (17개월과정)
양도소득세 일요일반	10:00 - 14:00(4시간)	10월15일(일) (1개월과정)

○ 양도소득세를 알면 귀하의 영입능력은 엄청 향상 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꼭 알아야 할 분 : 공인중개사, 법무사, 부동산관련종사자, 공무원, 기타 관심 있는 분
○ 수강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접수 가능
송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19348 (예금주 - 이미지)

종합세무회계 학원
상담전화 ☎(062)234-0052 팩스 (062)234-0053 총장로파출소 옆(밀리오레 맞은편)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6개월화원제 / 1년 화원제
2천이론+지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지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화원제)
- 전용지습실 사용 가능
- 정독서실, 고사원 풀이 해매
- 시험관 무료시험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조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엽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경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담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0월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표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을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판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필름표 난방은 열선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파나 인심하세요.
터짐을 염전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대비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면접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
개강: 9월 4일